

다산포럼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
자유칼럼그룹 공동 대표

한양대 국문과 정민 교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어려서 “천주의 고양이어”라고 기도를 하는 할머니에게 왜 고양이를 찾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던 할머니는 손자의 질문에 당황해 “그야 하느님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나 보지”하고 얼버무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세상의 죄를 면하여 주시는 자 천주의 고양이어”라는 기도문이었다고, 고양은 어린양(이 말은 불어 써야 한다.), 즉 羔羊이라는 한자였다. 羔는 ‘새끼 양’ 고자다.

천주교에는 어려운 한자 말이 많다. 조선조 말엽에 전래된 이후 200여 년 동안 기도문과 많은 전례(典禮) 용어 등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 왔다. 그러나 한자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나 한문은 알지만 교회 용어에 서투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 많다. 세 번 치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올리는 삼종(三鐘) 기도를 세 가지(三種) 기도로 잘못 아는 사람도 있다. 목주기도 중 ‘영광의 신비’ 5단에서 “어머니, 이 모든 기도를 하느님께 전구해 주소서”라고 할 때, 전구(轉求)란 성모 마리아와 그 밖의 성인들을 통해서 하느님

한자와 씨름해야 할 천주교

의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다. 나보다 더 하느님께 가까운 존재에게 전구를 청하면 하느님이 더 잘 들어 주실 거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나보다 더 하느님 뜻에 맞게 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말도 쉽지는 않다.

사도신경 중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에 나오는 통공(通功)은 1)기도나 선행의 대가가 당사자에게만 아니라 하늘나라나 영육의 다른 이들과도 통하는 일, 2)분업으로 어떤 일을 이룸이라는 뜻이다. 이때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한자 말이 나름대로 장중하고 전아한 매력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엄숙하고 정중한 미사 등 천주교의 종교 의식에는 한자 말이 잘 어울리기도 한다. 그래서 한자 말이 의지하는가 싶기도 한데, 천주교는 ‘맛갓다(마음이나 입맛에 꼭 맞다)’ 같은, 아름답지만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우리말로 끝날 쓰고 있다.

내가 정확하고 자세히는 몰라도 쉬운 말로 바꾼 것도 많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꾼 말을 잘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느 대교구청의 경우 성모모양에 대해 ‘교구의 제 1 주보인 루르드(프랑스 남서부의 성모 발원지)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모신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보(主保)는 주보성인의 준말이고, 주보성인은 수호성인의 다른 말이다. 수호성인으로 말을 바꾸었는데도 주보라고 쓰는 곳이 많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회에 다니는 나이린 학생들은 혼란스럽고 어려울 것이다. ‘미답다’를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는 뜻으로 알 만큼 우리말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니 한자 말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대관절(大關節)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요점만 말하건대’라는 뜻인데, 아이들은 ‘큰 관절’이라고 답한 경우가 있었다. 발꿈치와 정강이 사이를 잇는 띠 모양의 관절이 대관절이긴 하지만, 그것은 ‘帶關節’이라고 쓴다.

이런 세대를 대상으로 어떻게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며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용어를 더 쉽게 바꾸든지 한자 교육을 병행하든지.

나는 최근 5주간의 교육을 거쳐 견진성사를 받았다. 중학생들도 많았는데, 그중 한 녀석에게 견진이 뭔지 물어보니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浬振이라는 한자를 알면 그 뜻이 분명해질 수 있었겠지만, 마지막 시간대에 의미를 설명할 만큼 강의는 이런 점에 좀 무심했다.

교육의 정식 명칭은 ‘전신사 재교육 및 견진성사 안내’였다. 나는 이 ‘전신사’가 다른 종교에서 넘어온 사람들, 우습게 말해 ‘귀순용사’를 뜻하는 말인 줄 알았다. 그래서 재교육을 하는 것이요 한자로는 ‘轉轉者’라고 쓰나 보다 싶었다. 그러나 그런 단어는 아예 없었다. ‘전신사’는 전체 신자라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전신사’라고 띄어쓰기를 해야 하며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된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 특히 천주교는 신자 확충과 교리의 정확한 전승을 위해서라도 한자 문제, 나아가 우리말과 우리글 사용에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김하림의 차이나4.0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가 종료되었다. 예상했던 것처럼 시진핑 현 총서기의 3연임이 확정되었고, 7인의 상무위원들도 선출되었다. 3연임이 확정된 시진핑 총서기는 내년 3월경에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주석직도 3연임할 것이 확실하다. 이에 따라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 주석이라는 세 개의 직책을 맡아서 정치, 군사, 행정부를 모두 총괄하게 될 것이다.

새로 진입한 4인의 상무위원들은, 능력보다는 충성도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평이 대부분이나, 모두 푸젠, 저장, 상하이 등지에서 시진핑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이른바 ‘시자권’(習家軍)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상무위원에 연임된 2인도 마찬가지로 시진핑 인맥으로 평가되었던 인물들이다.

이번 당 대회에 대한 국내외 여론은 대부분 비판적이다. 개혁개방 이후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한 집단 지도체제가 무력화되고, 견제와 균형이 어려워짐에 따라 독주 체제로 들어섰다는 측면 때문이다. 공청단(공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가 던진 문제들

산주의 청년단)의 대표 인물인 후진타오 전 주석의 퇴장 사태를 놓고 이리저리란 해석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공산당의 3대 세력이었던 공청단, 상하이파, 홍얼다이(紅二代, 흔히 태자당이라 일컫는 중국 혁명 원로의 자제들)파가 모두 몰락하고 오직 시 총서기로 단일화되는 ‘원팀’ ‘원만’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당 대회에서 시 총서기는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여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중국몽’과 ‘일대일로’ ‘쌍순환’ 등의 사업으로 대표되는 시 주석의 대내외 정책이 지속될 것이며, 미·중의 무역 전쟁 및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타이완 문제 등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우려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팀, 원팀’ 체제를 시진핑 총서기의 개인적 권력욕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단절이라 보여진다. 오히려 이는 중국(공산당)의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측면이 더 크다.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을 배제하는 다양한 동맹 체제를 신설하고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가 GDP가 미국의 70% 정도에 달하는 중국이 몇 년 후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에 첨단 공정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부대 조건을 마련하거나

인도태평양경제위협의(IPEF)로 중국을 배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도 하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통일 문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해 위기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위기의식은 중국 인민과 공산당에게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당 헌법인 당장 개정안에 ‘타이완의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된 것이 하나의 증거이다. 내부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요구된다. 빈부 격차의 해소, 농민·농촌·농업이라는 ‘삼농’ 문제의 해결, 지역 격차의 해소 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 경기가 침체되어가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늪은 깊어만 가고, 코로나로 인한 봉쇄 정책 등으로 단기간에 국제 경기가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 내수와 국유 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 전략, 기술 자립 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문제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위기의식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거대한 두 마리의 고래가 싸울 때 등 터지는 것은 새우라는 점은 명확하다. 속타고 등 터지지 않으려면 새우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함지박 논과 메뚜기 지혜

들렀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벼, 계절에 어긋남 없이 누렇게 익어 가고 있었다. 2킬로그램 남았던 초등학교길 양쪽은 그야말로 푹 푹 들만이다. 하룻길은 거의 날마다 배이삭을 까먹으며 해탈을 즐겼다.

잠시의 상념에 빠져 무심코 벼를 바라보던 순간 깜짝 놀랐다. 딱 한 마리, 벼를 갉아 먹고 사는, 머리 푸른 메뚜기가 붙어 있었다. 메뚜기가 놀랄 대상은 아니지만 몇 십 년 만에 본 벼메뚜기다. 지금은 농촌에서도 메뚜기 보기가 어렵다. 농약 때문일 게다. 눈독길에 넘어지면서 닭 먹이로 잡았던 일은 나만의 추억이 아니다.

메뚜기는 종류도 많고 식성이 왕성하여 엄청나게 먹어대는 해충이다. 1톤의 무리가 2500명의 식량을 하루에 없애 버린다 한다. 그런 피해를 그려놓은 소설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필립의 ‘대지’다. 바람 타고 때가 한 번 나타나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앉은 일대는 완전히 폐허로 바뀌고 만다.

그 후손 한 마리가 겨우 다섯 포기씩의 벼 속으로 숨어들었다. 사진을 찍는다 어떤 소란을 피워도 나 모르쇠다. 그래도 속은 편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서 태어나 살다가 어쩌어 고향을 뗏을까? 가까이엔 눈도 없다. 메뚜기는 뛰는 곤충이라 능히 날지 못하는데 벼 몇 포기 찾아내기까지의 집념이 눈물겹다.

다음 날도 K교수와 또 연정을 들르게 됐다. 멀리서 오신 문우 대접 식당이 근처여서다. 여제의 메뚜기가 생각나 벼 포기를 살펴보니 흔적이 없다. 언제 떠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로 출입구 앞이라 불안을 느꼈으리라. 살아가기 위해선 안전한 곳이 아니면 시련과 인고가 따른다.

삶은 ‘탐집’로 더럽혀져 가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살아야 한다는 짐을 지고 일방통행의 길을 간다. 사치스런 삶에도 좌절은 있고 그래서 때로는 탈출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여유를 가진 그런 순간이 행복할 것이다.

길은 많다. 어떤 길을 골라 나답게 사느냐가 문제다. 길을 찾는 것이 지혜이고, 잘못 든 길이라면 돌아서야 하는 깨달음은 더 큰 지혜다.

세상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 법칙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기쁨이나 행복이 무한히 이어진 채 상승할 수는 없다. 아카르소가 실증했다. 한계를 넘으면 다음은 추락이다. 크게 이뤘다고 크게 웃어봤자 덧없는 일이다. 많이 얻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크게 웃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뒤편 지친 메뚜기가 오묘 안 된 벼를 발견했을 때 매우 기뻐할 것이다. 위협을 느꼈기에 다시 떠났을 것이다. “지혜란 구해야 할 것 및 피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식이다.” 키케로가 남긴 명언이다.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잘못 디더 빠진 한 발을 간신히 빼고 나면 금방 다른 발이 빠진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만사가 네 탓이다. 세상 떠난 김동길 교수님의 “이게 뭐니까?”가 절로 생각난다. 길이 아님을 알았으면 바뀌어야 하고 변해야 산다. 장자는 “잘 짓는다고 좋은 게가 아니라” 했는데 말 잘하는 정치가들은 변명과 조작의 귀재들이다.

낮짜 없는 메뚜기도 아는 ‘지혜’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을 터, 이(利)와 권세 앞에서는 ‘교활한 술수’ 말고는 지혜의 작풍이 안 되는 모양이다. 어두워도 강물은 길을 알고 도도히 흘러간다.

社說

젊은이들 참담한 죽음, 철저한 원인 규명부터

이태원 대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사망 154명, 중상 33명, 경상 116명 등 모두 303명으로 늘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 20대가 103명, 30대 30명, 10대 11명으로 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광주·전남에 연고가 있는 희생자도 열 명이나 됐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참척(慘戚)의 고통에 요열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믿을 수 없는 참담한 비극이다. 이 때문에 참사가 일어난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으며,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과 지자체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최대의 희생자를 낸 이번 압사 사고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3년 만에 처음 마스크 없는 헬러윈 행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파 운집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경찰과 지자체도 사고 당일 10만 명의 인파가 좁고 제한된 공간에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태원 일대에는 사고 전날에도 수만 명이 몰렸고, 당일에도 지하철 이용객만 13만 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대구

모 인파 운집과 압사에 대비한 안전 조치는 없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인력도 137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범칙 예방 인력이 대다수였다.

이태원 상인들은 지난 2017년에는 경찰이 통제선을 만들어 안전 관리를 했으나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사고 사흘 전 헬러윈 주간예에 대비한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과 지자체에 사전 통제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각 기관들의 소극 행정이 피해를 키운 셈이다.

그럼에도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혀 반축을 사고 있다. 압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대에는 사고 전날에도 수만 명이 몰렸고, 당일에도 지하철 이용객만 13만 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대구

반복되는 재난...위험 대응 안전교육 강화해야

반복되는 비극적 대형 재난 속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시민·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이벤트나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다중 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취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다중이 위험 상황에 놓이거나 생명이 위협받을 때 군중 심리가 작동해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자체와 인파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언제든 지원하면 재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에서 주목받은 심폐소생술(CPR)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길바닥에 쓰러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앞다투 심폐소생술에 나서 추가 상상을 막았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발생 후 골든 타임인 4분 이내에 시행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응급 처치법이다. 일부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우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이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인파 밀집 장소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압박이나 넘어짐 사고에 대비한 생존법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번 참사 희생자 가운데는 중고교생도 여섯 명이나 포함됐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위험 신호를 사전에 인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온라인 교육이 아닌 생생한 현장 교육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無等鼓

1751년(영조 27년) 윤 5월 하순(양력 7월 말), 일흔여섯 살의 사대부 화가는 지음(知音·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잃었다. 화가와 그는 같은 스승 문하에서 공부했고, 벼슬살이를 하며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자 ‘시화환상간’(詩畵換相看) 약속을 했다. 그가 시를 한 수 지어 보내면 화가는 그에 맞춰 그림 한 점을 그려 보냈다.

시화에서 쌍벽을 이룬 두 사람은 사천 이병연(1671~1751)과 겸재 정선(1676~1759)이다. 평생지기가 세상을 떠날 즈음, 화가는 장맛비가 그친 후 북악산 줄기산등성이에서 바라본 인왕산 자락의 풍광을

후 실제 작품 속에서 인왕산 정상의 거대한 압박인 ‘치마바위’를 비롯해 빗물이 모여드는 ‘수성동 계곡’, 푸른 단풍나무가 있는 골짜기 ‘청풍계’를 일일이 찾아보았다. 작품 앞에 마련된 소파에 앉아 진품을 직시하면 겸재가 보았을 ‘인왕산의 비 갠 경치’가 눈앞에 펼쳐졌다. 목의 짙고 열을 조절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내려 그는 붓질이 생생했다.

유홍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화인연전1’(역사비평사)에서 겸재에 대해 “그는 조선적 산수화를 창시하고 완성했다”며 “당대의 문화적 성숙에 힘입어 이를 자신의 속명

인왕제색도

를 그렸다. ‘비결 제’(霽)와 ‘빛 색’(色)을 쓰는 한자말 제색은 ‘비가 갠 후 맑은 하늘색’을 의미한다.

진경산수화가 겸재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인왕제색도’가 지난 10월 5~31일 국립 광주박물관에서 전시됐다. 고(故)이건희 회장 기증품의 첫 지역 나들이인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찾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겸재의 명작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먼저 작품 해설 영상을 본

“그는 조선적 산수화를 창시하고 완성했다”며 “당대의 문화적 성숙에 힘입어 이를 자신의 속명

적 과업으로 알고 신분을 떨쳐버리고, 남들이 천하다고 비웃는 소리에 꺾이지 않고 ‘내 비록 환경이라 불릴지라도’ 화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열정과 의지로 이와 같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270여 년 전에 그려진 진경산수화 한 점은 겸재와 사천, 그리고 당대 예술사 등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은 안목 높은 수집가의 컬렉션 덕분에 더없는 안복(眼福)을 누렸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기고



황옥주 수필가

찾집 ‘연정’ 토랑에는 예뻐 것도, 귀할 것도 없는 몇 가지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다. 토란 가지 토마토에 구석에는 초라한 부추도 있다. 투박스럽고 아무렇게 생긴 그릇이나 스티로폼 박스 안이 농장(?)이다. 하나하나의 갖춤새가 찾집 주인의 고무신발과 딱 어울린다. 농장주가 보던 말근 방울토마토 한두 알 흠쳐 먹어도 부담 가지 않아 좋다.

특이한 작물이라면 두 개의 플라스틱 함지박 안에서 자라고 있는 배다. 작은 것에 다섯 포기, 큰 함지박에는 여덟 포기까지 전부다.

함지박 눈은 봄에 물만 채워 놓으면 울쟁이 밥이 저절로 생겨나고 개구리가 뛰어들어 알을 낳는다고 한다. 신통하다. 근처 어딘가 더 넓은 놀이터가 있을 법한데 굳이 함지박 눈에서 살겠다니 말이다. 아마 오묘 안된 물이라서인지 모르겠다.

가을이 저물건 말건 함지박 눈은 추수한 적이 없다. 참새들이 노리고 엿볼 것은 당연하다. 사람 그림자가 얼선대면 달아나고 조용하면 되돌아온다. 재잘대며 벼알 쪼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해마다 심게 된다.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추석 며칠 뒤 K교수와 연정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